

더 많은 의료 서비스, 더 가까운 곳에서

2026년 6월 16일 미디어 문의

알버타 주정부와 알버타 약사회(Alberta Pharmacists' Association)는 약국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새로운 협약 체계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장기 처방약 재조제, 약국 방문 횟수 감소, 농촌 및 원격 지역에서의 약사 주도 의료 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보호하면서도 비용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 지원 모델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보상 체계는 지속 돌봄을 포함한 전문 의료 환경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이 기존의 조제 업무를 넘어 임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이 어떤 의료 환경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만성질환을 가진 알버타 주민들은 최대 100일분의 의약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되어, 반복적인 약국 방문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협약은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것입니다. 약국 방문 횟수는 줄이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높이며,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집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사는 주민들이 신뢰하는 최일선 보건의료 전문가입니다.

알버타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알버타 주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스틴 라이트(Justin Wright) 일차의료 및 예방보건서비스부 장관

이번 협약 체계는 알버타 블루크로스(Alberta Blue Cross)와 약국 간 협약을 포함하여 약국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약사를 대표하는 알버타 약사회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약국 운영자이자 현직 약사로서, 저는 지역사회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약국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가 매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자들에게 만성질환 관리부터 처방약 및 백신에 대한 신속한 접근까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에일린 장(Aileen Jang) 알버타 약사회 회장

이번 3년 협약에는 첫 2년 동안 약국 보상 수가를 매년 3%씩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3년 차에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수가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처방약 조제 수가가 인상됩니다. 처방 기간이 84일 미만인 경우 조제 수가는 12.15달러에서 12.35달러로, 84일 이상인 경우에는 12.15달러에서 13.50달러로 조정됩니다.

올가을부터 농촌 및 원격 지역의 일부 약국에서는 건강검진, 현장진단검사, 급성 질환 평가 등 확대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알버타 주민들은 거주지 인근에서 더욱 신속하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특히 이동으로 인한 치료 지연이 빈번한 농촌, 원격 지역 및 원주민 공동체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처방 권한을 가진 의료인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중독 치료 의약품을 제한된 수량으로 상시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협약 체계에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납세자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맞춤형 조치도 포함됩니다:

-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약사 1인당 임상 약료 서비스 월 청구액 상한(1만 3,000달러) 도입.
- 알버타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을 강화한 치료 계획 개편.
- 일 조제 수수료가 적용되는 의약품을 제한하여 비용 증가를 억제하고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일일 조제 대상 의약품 목록 도입.

간략한 정보

- 2025~2026 회계연도에는 약 180만 명의 알버타 주민이 임상 약료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 이는 2018~2019 회계연도 대비 88% 증가한 수치입니다.
- 2025~2026 회계연도 기준, 신규 처방 및 처방전 갱신 서비스는 전체 임상 약료 서비스 비용의 44%를 차지했습니다.
- 현재 알버타주에는 지역사회 약사 4,622명과 지역사회 약국 1,769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 이어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 알버타주의 약사 수와 약국 수는 매년 2~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버타 주민의 약 99%는 반경 50킬로미터 이내에 약국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 [기자 간담회 보기](#)

미디어 문의

제이 랭(Jaye Lang)

780-239-4947

일차의료 및 예방보건서비스부 대변인